

19. 임금에게도 직언(40세)

1540년 (중종35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었다.
이해에는 가뭄과 전염병이 극심하였다.



어느 날 퇴계가 경연에 참석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신 이황
주상전하께 삼가 아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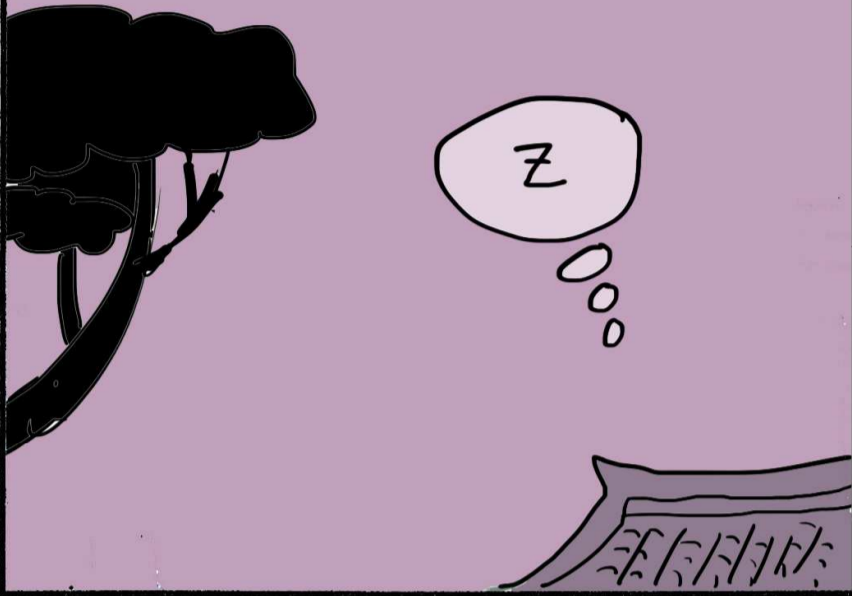
근일에 가뭄이
극심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옵니다.



대가뭄이 든 것은 과인이 부덕한
탓 일터이니 어찌해야
좋은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정전을 피하여
거처하신다든지



수라에 반찬의 가짓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나



마땅히 행하기를 지성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यो.
또 다른 이야기는?



가뭇에 은사를 내리는 것은
불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은사 : 죄인을
사면하는 것

과인이 왕으로써 백성에게
은덕을 베풀자는 뜻인데
어째서 불가하다는 건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주 은사를 내리면...



여러 착한 사람이 해를 입고 감사한 우리들이 기뻐한다 했습니다.

천인공노할 죄를 진 자를 벌써 풀어줘?

우리 아들도 조만간 풀려나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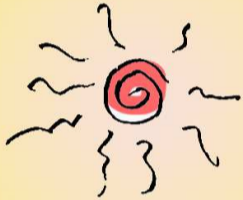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즈음 감사한 자들이 생각하기를...

어이구야. 가뭄에 논바닥이 짹짹 갈라지네...



이리 큰 가뭄이 들면 나라에선 반드시 특별사면이 있었지!



얼씨구나, 가물어라 더 바짝 가물어라!



당신 미쳤어?

미쳐도 좋다. 못된 짓 하다 감옥 간 우리 아들 풀려날 만큼만 가물어라!







금번 가뭄으로 백성들이 힘들어 하니
가뭄 극복 차원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치름이 어떠한가?



마마 참으로 현명하신
처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여도
우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야 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백성을 위해 하는 일인데
어째 그들의 마음을 먼저
살피야 한단 말인가?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하여야 백성들이
화합하고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순조로와
재앙이나 사고의 뒷수습이
잘 되어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과연 지극히
그러하구려.